# 월출산 정기따라 문화·역사길 8km

## 영암군 행안부 사업 선정 '녹색길' 조성

## 기찬랜드~월암마을 연말까지 15억 투입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영암 월출산 자락에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과 버금가는 명품 '녹색길'이 조성된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월출산 자락에 있는 기찬랜드에서 월암마을까지 8km 구간에 영암 고유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하는 명품 녹색길을 만든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받은 지원금 15억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조성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녹색 길이 조성되면 월출산과 기찬랜드, 왕인박사 유적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통해 자연과 역사 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는 종합 관광의 메카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월출산 천황사 입구에서 기찬랜드까지 총 7.5km의 기(氣) 웰빙 산책로인 '기찬묏길'을 개설해 군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 영암 '석면 지붕' 퇴출

## 郡, 연말까지 슬레이트 해체

영암군은 올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대량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제거를 위한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석면가루는 사람이 호흡을 통해 마시게 되면 폐암이나 악성 종양을 유발하는 등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위험성이 크다.

특히 농촌지역인 지역 대다수 주민이 슬레이트 지붕을 의지해 살고 있어 평소 건강에 큰 위협을 받아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해 지난해 '슬레이트 지붕해체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올해부터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난달 신청접수를 마쳤으며 이번 주에 최종 25세대 정도의 사업량 선정을 마치고 올 연말까지 총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세대당 최대 2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석면의 특성상 석면철거 전문업체를 통해 철거작업이 이루어진다.

영암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은 1970년대 초에 한창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면서 마을 대부분 석면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됐다"며 "더 이상 주민들이 석면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 장흥 '매생이' 66억 매출

## 年1050t 생산…미네랄 등 풍부 선호도 높아

장흥 매생이가 지역어업인 소득증대에 '1등공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9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2011년산 매생이가 6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장흥 매생이는 200 어가에서 연간 1050t을 생산, 재래시장·대형 마트·백화점에 납품해 수십억원대의 소득을 올리는 효자 품종이다.

장흥 매생이는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최종 심사만 남은 상태이다. 이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안정적 판매를 하기 위함이다.

특히 장흥 매생이는 생산지가 개펄로 미네랄이 풍부해 찰지고 부드러우며 아미노산 함량이 많아 인근 타 군에서 생산되는 매생이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 선호도가 높다.

군은 찰매생이 고부가가치의 제고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하버바이오(주)매생이 가공공장을 시설 운영해 고용인원 35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외 수출 길 까지 열어 매생이 매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생이 1차 가공품 생산으로는 원료제공을 위해 분말 생 매생이를 대체한 동결건조, 2차 가공으로는 청소년층을 겨냥한 초콜릿 등 과자류 제조 상품화하고, 3차 사업으로 항암, 면역증강, 다이어트 제품 등 기능성 식품을 개발해 산업화해 지난해대비 140% 소득을 올렸다.

장흥군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장흥 매생이 이미지를 위해 위생 및 제품 관리를 철저히 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교복 물려 입고 나눠 입어요"** 광주 광산구는 지난 2주간 우산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중학교 교복(동·하복) 물려주기 나눔행사를 마련, 호응을 얻었다. 구는 주민들로부터 관내 7개 중학교 교복 1200여 점을 기증받아 세탁과 수선을 마쳤다. 〈광산구 제공〉

# 장흥경찰 '무사고' 11년

## 2000년 2월 이후 비리·음주 등 1건도 없어

일선 경찰관들의 각종 비위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장흥경찰서가 12년째 무사고를 이어 가고 있어 전국 경찰에 귀감이 되고 있다

9일 장흥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월 30일 이후 4050일이 지난 현재까지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음주운전사고 등 품위를 손상했던 경찰관 비위행위가 단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장흥경찰의 무사고는 전남지방경찰청이 '건강한 전남경찰 만들기' 특수시책에서 산하 21개 경찰서 가운데 1999년 12월부터 이어온 보성경찰과 2000년 1월의 영광경찰에 이어 3번째 기록이다.

또한 장흥경찰은 지난해 경찰청이 '갤럽' 여론매체를 통해 전국 3급지 경찰서를 대상으로 '치안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친절환경 인증패'를 받기도 했다.

오영기 서장은 "이 같은 경찰관들의 무사고는 단순한 경찰조직만의 노력이 아닌 '문림의향'의 유서깊은 주민들의 순박한 성향과 기질이 크게 도움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청렴도 평가에서 2009년(전국 1위)에 이어 지난해(3위)를 차지 2년 연속 상위평가를 받은바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 자연해설 전문인 양성

### 내장산 국립공원백암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소장 정석원)는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자연해설 전문성 함양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자연 및 역사·문화해설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자유롭게 청강할 수 있는 열려있는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숲과 역사 ▲우리 문화와 숲 ▲문화재의 이해 ▲식물의 특징과 분류 등 다양한 주제의 9강좌(31시간)로 구성된다.

정석원 소장은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에게 국립공원과 환경의 소중함에 대하여 알리고 해설사들의 해설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생태관광 등 탐방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61-392-7288)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 겨울 효자 '시설가지'

## 2010 동계작물 소득조사 1위…1000㎡당 774만원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재배된 겨울작물 가운데 시설가지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원장 조영철)은 최근 도내 14개 시·군 186 농가를 대상으로 도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겉보리 등 13작형에 대한 2010년 동계작물 소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0a(1000㎡)당 시설가지 소득액이 774만4000원의 소득을 올려 가장 높았고, 반촉성재배 시설딸기는 703만1000원으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촉성재배 시설딸기는 601만3000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대비 소득증가율이 가장 높은 작목은 시설가지, 노지 봄무, 시설참외 순으로 조사됐다.

시설가지는 난방비 급증 등으로 타 작목으로 전환하면서 재배면적이 감소해 출하량 감소에 따른 농가수취가격 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했으며, 노지 봄무는 제주 월동무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냉해피해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상품물량이 크게 감소했고, 봄철의 잦은 기상변화로 인한 생육지연으로 출하량이 크게 감소해 농가소득이 증가하였다.

반면 겉보리와 촉성재배 시설딸기, 시설감자 등은 2009년보다 소득이 57.8~18.7% 감소했다.

촉성재배 시설딸기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잿빛곰팡이병'과 수정불량 및 많은 강우량으로 수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해 농가소득이 감소했다.

전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추가로 2010년 하계작물에 대한 소득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농가 경영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내달 군산은 '축제의 도시'

## 20여개 첫 통합 새만금 축제 4월 8~24일 개최

군산과 새만금지역에서 봄철에 열리던 20여개 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통합돼 펼쳐진다.

군산시는 "봄철 각종 축제와 행사를 통합한 '군산 새만금축제'가 '새만금으로 하나되는 군산, 그 화려한 비상'을 주제로 다음달 8일부터 24일까지 군산 월명경기장과 은파유원지 등 시내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군산 새만금축제는 그동안 개별행사로 치러져 온 새만금마라톤 대회와 ▲투르드 코리아(사이클) ▲벚꽃 아가씨 선발대회 ▲국악경연 ▲수산물축제 등 20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가 통합돼 치러진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거리 행진이 연출될 계획이다.

4월 8일 개막식에 앞서 치러질 거리 퍼레이드에서는 군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등장하고 각종 전통과 현대 의상을 입은 시민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군산상고와 극동사거리~궁전예식장~은파관광지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펼쳐질 이번 행사에는 군산시의 자매도시인 김천시 취타대도 참가해 경쾌하고 화려한 리듬과 율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산업도시로 발돋움하는 군산의 대표기업인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대우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자사를 알리는 조형물을 일반에 선보인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산낭비를 막고 각종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합축제를 결정했다"면서 "거리행진은 봄철 통합축제인 군산 새만금축제의 상징성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켜 시민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종자생산 1번지 '정읍'

## 4개 단지서 533t 생산…호남·충청권 보급

정읍지역이 호남지역 종자생산의 일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일 정읍시에 따르면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으로부터 2011년 벼 보급종 채종포 신규단지 2곳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기존 채종단지 2개 단지를 포함해 총 4개단지 97ha에서 533t의 우량종자를 생산할 예정이다.

신규 선정단지는 영원과 태인에 각각 19ha, 22ha이고 재배품종은 '새누리'다. 기존 단지인 태인과 옹동에서는 '동진 찰벼'와 '새누리' 품종이 생산된다.

채종농가에는 정부 수매가격의 20%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일반농가 대비 133%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이 밖에도 정읍 지역에는 신태인 우령 등 7개소(158ha)에 청보리 생산단지도 조성돼 있다. 정읍에서 생산된 벼와 청보리 종자는 국립 종자원에 납품돼 정선(精選)과 소독과정을 거쳐 전북·전남·충청도 등 호남·충청권에 보급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발효과학이란 이런 것…** 최근 순창 장류(醬類)박물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내부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순창군은 앞으로 장류박물관 주변에 소나무와 각종 꽃나무를 심어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단신

###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유물 4035점 확보

오는 8월 개관예정인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시작된 시민 기증운동에 따라 현재까지 박물관 전시유물 총 4035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이희숙·황양주·김원광·김진주·김순애씨 등 시민 5명이 족보·전통 나무밥통·호구단자·전통 장롱·농경도구·생활용품 등 40점을 시에 기증했다.

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5월 준공 후 시험 가동기간을 거쳐 8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익산시 '야간 누수탐사반' 운영

익산시는 이달 중순부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상수관리과 누수방지계 직원 6명으로 '야간 누수탐사반'을 운영한다.

누수탐사반은 시내권 노후 관로에 누수 탐사기를 장착해 10분씩 6회 유속의 소리를 컴퓨터에 연결 수집해 누수음을 3차원 그래프로 표시, 정확한 누수지점을 파악, 누수지점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특히 누수 탐사후 상수 관망도와 비교해 도면과 다른 부분을 정리하는 등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 향후 누수처 발생시 신속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순창군, 동계초 등 4개교에 CCTV 설치

순창군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동계초, 중앙초, 풍산초, 팔덕초교 등 4개교 어린이 보호구역내 4개소에 1억여원을 투입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CCTV가 설치되면 어린이 성범죄 예방은 물론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통해 등하교시 각종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서는 CCTV 상황실 관리를 하게 되며, 군은 시설물 유지를 담당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김제경찰 매일 '한마을 방문제'

김제경찰서(서장 조용식)가 전국 최초로 주민친화적인 '매일 한마을 방문제'를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일 한마을 방문제'는 지역경찰관이 하루도 빠짐없이 한마을 이상을 방문해 주민과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체감치안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김제경찰은 한마을 방문을 통해 마을 이·통장, 부녀회장 등과의 대화를 통해 ▲방범CCTV 설치 권고 ▲강·절도 및 보이스피싱 ▲아동 성폭력 등과 같은 각종 범죄예방·홍보 등을 펼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